

멕시코 농촌지역의 정치적 참여 : 정치행위와 정치문화*

주종택(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글의 순서

- I. 서론
- II. 무니시피오(municipio)와 지방정치
- III. 조사지의 특성
- IV. 멕시코와 전통적 정치구조
- V. 산 환 델 에스파도의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 VI. 정치변화와 새로운 정치운동
- VII. 결론

I. 서론

멕시코의 신자유주의정책의 결과로 경제적 발전과 함께 정치적 개혁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지방의 정치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고, 농민들의 정치문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실제로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며, 기존의 정치관행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연

* 이 글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해외지역연구)의 지원을 통해 연구되었다.

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와 구조의 변화가 항상 적절한 행위와 관습의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현지조사가 정치변화의 이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인류학적인 참여관찰을 통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역사적, 문화적 바탕 위에 형성된 정치참여 형태와 정치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멕시코 농민들은 1929년 현재의 제도혁명당(PRI :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의 전신인 국가혁명당(PNR : Partido Nacional Revolucionario)이 설립된 이후 여당의 확실한 지지기반이었다. 이런 이유는 멕시코 혁명 후에 마련된 에히도(ejido) 제도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받았고, 또한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여러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서 농촌지역에 싼 값의 곡물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있다고 보겠다. 사회·문화적 의미에서 안정을 추구하려는 농민들의 역사적 전통주의와 보수주의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도혁명당의 하부조직으로 1938년에 결성된 전국농민연맹(CNC : Confederación Nacional Campesina)을 벗어나서 농민들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정부가 방해하면서, 농민들의 정치적 지위는 매우 낮은 형태로 남아 있고, 농촌지역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의 결정에도 발언권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정치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멕시코 농촌의 정치행위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처럼 우정, 친족제도, 의례적 대부관계(compadrazgo), 의무적인 공적 봉사형태인 까르고(cargo) 제도 등을 기반으로 해서, 호혜를 베풀고 충성심을 확보하는 권력자와의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과의 양자적 관계(dyadic relationship)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Wolf, 1966 : Fox, 1992 : Friedrich, 1986 : Stephen, 1991). 그러나, 점차로 농민들이 외부 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이해를 표현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이는 새로운 정치집단의 조직이나(Campbell, 1993), 아니면 다른 분

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상대적으로 정치에는 무관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정치문화는 과거의 관습과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런 문제를 멕시코의 농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밝히려고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전달되고 시행되는 과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한 목표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정치이념과 정치행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며, 이를 구체적 행동에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이념은 특정한 신념을 지칭하기보다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상적 관계에 회의적인 사람도 선거의 역할, 지도자의 신뢰, 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련의 정치행위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이념이나 정치행위와 함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정치과정의 변화도 주요한 조사 대상이다.

이 글에서 검증하려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의 정치문화에 수반되는 정치신념과 정치과정은 사회문화적 전통에 따라 크게 변질되었다. 둘째, 이런 현상은 농촌지역에서의 정치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목표와는 상이하게 나타나게 만든다. 예를 들면, 공정한 자유선거나 정치적 민주화라는 추상적 정치적 개념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그들 자신의 전통에 따르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정치문화의 일반적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정치문화를 가구의 단위를 넘어서는 의사결정과 권력행사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집단 내의 관료들의 권력 행사나 권력의 양도 등과 같은 정치영역뿐 아니라, 자발적 조직이나 비공식 조직의 권력관계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정치문화는 보다 넓은 문화체계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고(Diamond, 1993), 그것의 안정과

변형은 문화적 재생산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보겠다.

II. 무니시삐오(municipio)와 지방정치

행정단위로서의 무니시삐오는 정부 행정구조상 하위에 속하며, 현재는 주정부의 직접 통치를 받는다. 멕시코의 무니시삐오는 스페인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지만(Díaz Montes, 1992 : 20), 식민시대에는 정부가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무니시삐오는 나름대로 정치적 단위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치불안으로 무니시삐오 제도는 확립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다가 멕시코 혁명이 발발하자 독재정권이 붕괴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무니시삐오는 자치권을 획득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Díaz Montes, 1992 : 21~22). 그래서 1917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무니시삐오와 주정부 사이에 존재했던 중간조직이 사라지고 '자치 무니시삐오'(municipios libres)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어서 1929년에 현재의 집권당인 제도혁명당의 전신인 국가혁명당이 창설되어 지방의 유지인 까시께의 권력이 줄어들고(Díaz Montes, 1992 : 22), 1940년대에 연방주의가 확립되면서 무니시삐오 정부는 형식상 완전한 자치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Mallon, 1995 : 14). 이에 따라서 무니시삐오는 독자적인 정치단위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내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이렇듯 제도적 장치에 의해 멕시코의 무니시삐오 정부는 법에 의해 보장된 경쟁적인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Reilly, 1995 : 6),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자치가 경제적 종속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누린다고는 하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무니시뻬오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존하게 되었다(Díaz Montes, 1992 : 23). 즉, 형식적인 자치는 사회경제적 지원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각 무니시뻬오들은 경쟁적으로 정부나 여당의 정책에 충실히 따르게 되었다. 무니시뻬오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민주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주민들의 생활조건 개선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Guillén López, 1996 : 20). 무니시뻬오 내부에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리들이 각종 세금이나 기부금을 수시로 강요하여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무니시뻬오 정부가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60년대 후반부터 사회운동이 격렬해지면서, 기존의 정치조직을 변화시켜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1973년에는 정치개혁이 실시되어서, 소수의 정치조직이 연합하여 결성된 많은 정당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일부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치개혁이 무니시뻬오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직까지 무니시뻬오에서는 여당의 독점이 지속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치참여를 확립시키고, 지역정치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1983년에 무니시뻬오의 개혁안이 나왔다(Díaz Montes, 1992 : 28). 무니시뻬오의 권한과 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① 공공서비스를 마련하고 규제하며, 토지의 사용을 통제하는 권한, ② 마을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 ③ 무니시뻬오 정부에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허용. 이러한 정치적 개혁으로 무니시뻬오는 과거보다는 훨씬 자율적인 통치를 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무니시뻬오가 제도혁명당의 오랜 지지기반이어서, 이런 정치적 관계를 단절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을 유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야당의 정치적 진입이 시도된 일부의

무니시빠오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무니시빠오는 사회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동질적이고 집단적이며 잘 통합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직이었다(Cámara, 1952). 그러나, 무니시빠오 지방정부는 연방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제주의, 선동정치, 비효율성, 무책임성, 부패, 까시계주의(caciquismo), 보호자-피보호자 관계 등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Massolo, 1996 : 57). 이런 현상은 지방정부의 취약성, 경제적, 기술적 자원의 희소, 중앙정부에 의존, 정당 내부와 정당간의 갈등, 무니시빠오 관리들에 권력 집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Massolo, 1996 : 59).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오아하카의 무니시빠오에도 이런 문제는 그대로 적용되어서, 현재 많은 무니시빠오들이 정치적·경제적 분쟁에 휩싸이거나, 관리들이 부정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오아하카의 무니시빠오는 다른 지역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다른 특성도 가지고 있다. 우선 오아하카 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무니시빠오를 보유하고 있다.¹⁾ 즉,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분쟁이 오래 지속되어서 무니시빠오가 많아졌고, 이것이 지방정치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아하카주의 무니시빠오 정치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지방정치의 문제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III. 조사지의 특성

현지조사는 오아하카(Oaxaca)주의 수도인 오아하카시 인근에 자리잡고

1) 멕시코 전체의 무니시빠오는 2,378개인데 그중에 570개가 오아하카에 있다. 참고로 멕시코는 31개 주와 연방지역인 멕시코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아하카주의 인구는 멕시코 전체 인구의 약 1/30에 불과하다.

있는 산 환 델 에스파도(San Juan del Estado)라는 무니시뻬오에서 실시되었다. 이 마을은 농촌지역이지만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오아하카 계곡에 있어서 여러 지역과 교류가 활발하고, 정치활동이 외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곳이어서, 정부의 정책과 정당정치의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수도와 가까워서 주정부의 관심이 많고 정부의 지원도 많아서 농민들의 정치문화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장소라고 보겠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사는 1993년 5월에서 1994년 6월까지, 그리고 1997년 2월에 추가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의 초기에는 고문서 보관소에서 관리하는 문헌자료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그리고 신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그 다음에 정부 관리 및 정치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개략적 상황을 살피고, 그 다음에 수시로 열리는 정치적 집회에 참석하여서 정치행위의 내용을 분석했다.

산 환 델 에스파도는 인구가 2,500명 정도로서 농촌지역의 무니시뻬오 가운데 중간 정도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정치문화를 밝히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일부의 다른 지역처럼 하나의 무니시뻬오가 여러 개의 독립된 마을로 구성되어서 독자적인 정치집단을 구성하는 것과는 달리 이곳은 하나의 마을로 이루어져서,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이 체계적인 정치활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산 환 델 에스파도의 정치형태는 '용도와 관습'(usos y costumbres)에 따라 실시된다고 한다. 이것은 근대적인 정당정치가 아닌 전통적인 정치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치구조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많은 무니시뻬오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을의 정치문화를 분석하려면,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IV. 멕시코의 전통적 정치구조

1. 까시계

까시계(cacique)는 서인도제도의 아라와크(Arawak)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용어였다. 스페인인들이 라틴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그곳에서 그 지역의 지도자를 까시계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Gibson, 1984 : 390). 식민지시대 초기에는 스페인의 제도와 문화를 주입시키는 데 원주민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그래서 까시계의 독특한 의미와 기능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원주민들의 사회인 '원주민 공화국'(república de los indios)과 스페인인들의 사회인 '스페인 공화국'(república de los españoles)으로 분리되어 통치되면서(Lockhart, 1984 : 281), 까시계의 활동영역은 식민사회에서 확고히 보장받았던 것이다. 까시계들은 식민정부와 원주민 사이의 중개자로서, 원주민들의 노동력과 공물이 효과적으로 스페인 정부에 전달되게 하였다. 그래서, 식민시대 이전의 지배적인 원주민 귀족과 종속적인 평민들 간의 이원적 체계는 식민시대를 맞아 더욱 강화되었다. 오아하카에서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까시계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도시에 거주하면서 유럽풍의 의복을 입고 다녔다고 한다(Murphy, 1991 : 25).

까시계는 16세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존재였지만, 18세기가 다가오면서 그들 중에서 일부는 평민과 다름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Gibson, 1984 : 391). 이것은 식민지 후반기에 정치체제가 안정되면서, 식민정부는 더 이상 전통적 지도자인 까시계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원주민 귀족 출신으로 막강한 권력과 자치권을 가진 까시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스페인의 통제가 강화되자, 가지고 있던 일부의 부와 권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까시계의 쇠퇴 원인은 매우 다양했다. 질병으로 원주민의 수가 줄었고, 많은 원주민들이 스페인인 밑에서 농사

를 짓게 되어서 전통적 지도자가 쓸모 없게 되거나, 아니면 스페인의 행정 체제와 경쟁을 통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Gibson, 1984 : 412~413). 또한 까시계들 사이에도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들의 계급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했다(Varese, 1996 : 59). 그러나, 식민시대 후반에도 까시계들의 권한이 모두 박탈당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까시계들은 식민정부에 의해 부과되었던 강제노동에 동원되지 않았고, 공물도 바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위기감을 느낀 까시계들은 백인(criollos)들에 대한 원주민의 저항에서 원주민들을 지원하게 되었고, 원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지배를 피해서 까시계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Cockcroft, 1983 : 33 ; Stein, 1970 : 162).

스페인 정부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할 때에, 그 동안 고통을 겪었던 까시계들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정한 정치적 지위를 다시 확보할 수 있었다. 뒤에 뽀르빠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가 집권해서 전국적인 중앙집권적 조직을 구성하는 데 지방의 까시계들이 공헌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근대적 사회에서도 까시계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그 당시에 들어온 외국의 자본가들도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의 유지인 까시계들과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식민사회에서 식민주의의 확장에 기여를 했던 까시계들은 독립 이후에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는 장본인이 되었다(Cockcroft, 1983 : 86, 193 ; Esteva, 1983 : 106). 그래서 오아하카주에서도 19세기 중반에는 정치지도자 중에서 상인이나 사업가가 많았다고 한다(Sánchez Silva, 1995 : 68).

멕시코 혁명시기에 까시계들은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혁명에 뛰어들게 되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싸움에 참여했다. 그러나, 혁명 이후의 정부는 그때까지 잔존하는 지역 내의 여러 권력자들을 새로운 관료인들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했다(Knight, 1990 : 30). 이런 와중에서 까시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토지를 기반으

로 하는 까시께들의 권력이 중앙정부의 그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어서 일부의 까시께는 생존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거나, 토지나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경제적 손실을 피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LaFrance, 1987 : 6-7 참조). 또, 오토미(Otomí)나 다른 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명 이후에 정부의 역할이 미약해서 까시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Dow, 1996 : 197 ; Riding, 1989 : 49).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시께들의 생활형태나 문화는 식민시대와는 달리 농민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Long, 1994 : 356).

혁명시기에 많은 까시께가 소멸되거나 권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혼란기를 틈타서 새로운 까시께가 등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혁명 이후 혼란이 극심했던 뿌에블라(Puebla)주에서는 가브리엘 바리오스 까브레라(Gabriel Barrios Cabrera)라는 사람이 군사적 힘을 배경으로 까시께로 발전했다(Brewster, 1996 : 106). 즉, 중앙정부의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언제라도 까시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까시께의 존재 유무와 영향력의 정도는 각각의 농촌사회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라 로솔라나(La Rosolana)지역에서는 일거리가 적고 까시께들이 고용기회, 상업, 정치를 장악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아직도 까시께에 의존하고 있고(Martin, 1996 : 200), 빠닉스틀라와까(Panixtlahuaca)에서는 상업작물인 커피의 재배로 계급분화가 일어나면서 까시께 제도가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Hernández-Díaz, 1982). 긴급할 때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는 까시께의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에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부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는 까시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까시께의 역할이 식민시대부터 지역사회와 전체사회를 연결하는 중개자인데(Esteva, 1983 : 41 ; Hewitt de Alcántara, 1984 : 90),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중개인의 효용성이 감소하면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까시께들의 부가 줄어들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면서, 까시께들의 쇠퇴가 많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Vallado Fajardo, 1996 : 255~256).

까시께의 직업도 예전에는 대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나칸탄(Zinacantán)에서는 까시께 중에 펄시콜라 공급자나 트럭 및 버스 소유자도 있다고 한다(Vogt, 1990 : 39). 경제적 부와는 별 관계가 없고, 정치적 권력에만 관심을 쏟는 까시께도 있지만(Joseph, 1987 : 36), 이런 경우는 예외에 속하고, 대부분의 까시께가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까시께는 다음에 나오는 까르고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적 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통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까시께들은 항상 마을 내에서 높은 까르고를 점유하거나, 관리들의 선출에 관여한다(Ouweneel, 1995 : 759 ; Vogt, 1990 : 39).

2. 까르고 제도

까르고(cargo) 제도를 통해서 아직도 상당수의 농촌사회가 정치지도자를 선출하고, 무니시피오 정부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정치문화와 의사결정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까르고 제도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 보수를 받지 않고, 마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관습을 의미한다. 이것은 보통 정치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이 혼합되어 있으며, 일정한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에서 공민적-종교적 위계구조(civil-religious hierarchy)라고도 불린다. 또한 천주교의 성인을 기리는 공적인 축제인 종교적 까르고를 마요르도미아(mayordomía)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까르고 제도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주민들의 견해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어 왔다(Cancian, 1990 : 66 ; 1992 : Dewalt, 1975 : 100 ; Hernández-Díaz, 1992 : 134~136). 그러나 까르고 제도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제한하고 공동의 가치관을 강화시키며, 사회 내의 갈등을 줄이고, 전통적인 친족 제도를 지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Cancian, 1965 : 133).

챤스(Chance)와 테일러(Taylor)에 의하면, 공민적-종교적 위계체제로서의 까르고 제도는 식민시대 이전의 유산이 아니라, 19세기에 와서 나타났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에 교회의 부를 관장하던 종교적 조직인 '우애협회'(cofradía)가 붕괴하면서, 대안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시대 초기부터 존재했던 행정조직으로서의 까르고 제도는, 이보다 일찍 스페인의 '지방의회'(cabildo)에서 변화된 것이다(Chance and Taylor, 1985 : Stephen, 1991 : 157).

19세기부터 까르고 제도가 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어서 불만이 생기자, 멕시코 정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것의 피해를 줄이려고 애썼다. 1917년의 헌법을 통해서 교회의 권한과 운영을 제한하는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이어서 까예스(Calles) 대통령은 1926년에 무니시เป오 행정부 안에 교회의 활동을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도록 명령했다(Stephen, 1991 : 171). 그 밖에도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까르고 제도를 폐지하여 정치체계를 일원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그때마다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서 시행되지 못했다.

까르고 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매우 많은데, 이 제도의 구체적인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매우 혼동스러운 경향이 있다. 논쟁의 초점은 까르고 제도가 일정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분명한 위계체제(ladder system)인가 하는 것이다(Chick, 1981 : 227 ; Foster, 1979 : 197 ; Whitecotton, 1977 : 248 참조). 사회 내에서 까르고 제도의 기능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분야이다. 까르고 제도가 평준화(levelling), 계

층화, 착취 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조사지역과 조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Cancian, 1965 ; Hernández-Díaz, 1991 : 121~126 참조). 어떤 지역은 공민적 까르고와 종교적 까르고가 독자적으로 실행되지만,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통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Chance, 1990 : Chance and Taylor, 1985 : 2 ; Stephen, 1991 : 157~160 참조). 이렇게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변형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 규칙을 발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멕시코의 정치행위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까르고 제도가 남아 있는 곳에서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자치가 강해 정당의 역할이 미약하다(Hernández and Fox, 1995 : 182~183). 따라서, 까르고 제도의 존재 여부가 정당정치 성격과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다.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까르고 제도가 과거의 정형에서 벗어나 변형되거나, 소멸되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대체적인 추세라고 해도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다. 경우에 따라서는 까르고 제도가 오히려 강화되는 사례도 있다. 마을 내에서 경제적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공동체 의식을 통한 사회적 재생산이 가능하며, 천주교의 영향력이 큰 곳에서는 까르고 제도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Topete Lara, 1996 : 491~492 참조). 제도의 실행은 마을마다 지역 특유의 형편과 역사적 전통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까르고 제도의 성격은 주어진 사회의 사회문화적 전통에 대한 민족지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는 이해되기 어렵다.

V. 산 환 델 에스파도의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1. 까르고 제도의 의미와 변화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는 21세와 60세 사이의 모든 성인 남성들이 의무

적으로 까르고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일찍 결혼을 한 젊은 남자는 18세가 되면 까르고를 부여받는다. 물론 이런 규정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 마리오(Mario, 73세)라는 노인은 16세에 첫번째 까르고를 맡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어려서 실정을 잘 몰랐고, 자신이 고아였기 때문에 마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마을에 지속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까르고를 수행할 의무가 면제된다. 예를 들면 인근의 마을에서는 주기적으로 미국에 가서 임금노동을 하는 경우에 까르고를 맡아야 할 시기가 되면 일을 중단하고 돌아와야 하지만,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근래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까르고를 할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는 공민적 까르고와 종교적 까르고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은 무니시삐오의 관리로 선출되거나 무니시삐오나 교회의 공복으로 봉사하거나, 아니면 마요르도미어를 주관함으로써 의무를 다할 수 있다. 무니시삐오 정부(H. ayuntamiento)는 다른 지역처럼 최고 책임자인 의장(presidente) 1명, 사법권을 가진 법률고문(síndico) 1명, 그리고 특별한 행정적 직책을 갖는 행정위원(regidor)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5명의 관리(proprietario)들은 대리인(suplente)을 각각 1명씩 거느리고 있다. 무니시삐오의 관리들은 3년에 한 번씩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대리인들은 원래 관리들의 유고시에 역할을 대행하게 되어 있지만, 이 마을에서는 별다른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관리들이 필요할 때마다 일거리를 맡긴다. 다른 마을에서는 관리들과 대리인들이 1년씩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 밖에 4명의 무니시삐오 관리들의 심부름꾼(ministro), 4명의 무니시삐오 청사 미화원(mesonero), 5명의 관리들의 서기(secretario), 2명의 교회 관리인(sacristán), 2명의 청사와 정원의 관리인(topil)이 해마다 12월 첫 일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주민들에 의해 임명된다. 그 밖에 1명의 치안판사(alcalde), 1명의 회계(tesorero), 1명의 마을의 공동토지 관리자(representante de bienes comunales), 30명의 마을 경찰, 다수의 위원회 구성원

들은 전체회의가 끝난 다음에 관리들에 의해서 지명된다. 무니시베오 관리들을 제외한 모든 까르고는 임기가 1년이다. 임기가 3년인 무니시베오 관리들과 1년 동안 격주로 매일 힘든 일을 하는 심부름꾼과 청사 미화원들은 까르고 의무가 끝난 다음에 까르고를 다시 부여받기 전에 3년 동안 휴식을 취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2년 간의 휴식을 취한다. 까르고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지만, 무니시베오나 교회에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정한 날에 성인을 기리는 마요르도미아를 주관해야 한다.

구성원들에게 까르고를 부여하는 일은 대단히 미묘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는 농업종사자들은 농업행위에 의사결정권을 갖는 선출직인 무니시베오 관리를 선호한다. 반면에 오아하까 시에 일자리가 있거나, 마을에서 가게나 작은 업체를 소유하고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12월 이전에 무니시베오 관리들을 만나서 어떤 축제를 주관할 것인지 상의한다. 관리들을 제외하고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는 까르고는 힘든 육체노동을 수반하고 시간이 많이 들거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기를 꺼린다. 아무도 자발적으로 사회적 위신이 높지 않고 힘든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까르고 수행자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1993년 12월에 실시된 까르고를 지명하는 전체회의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다.

무니시베오 관리들은 회의 전에 다음해에 까르고를 맡아야 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서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준다. 임명절차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매우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명단에 없는 사람을 호명하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조사자도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까르고를 주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말해서 한바탕 웃음판이 벌어졌다. 전체회의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까르고를 지명하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추천하기를 꺼렸다. 지명은 secretario, ministro, mesonero, sacristán, topil의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 날은 마을 광장의 정원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정원사(jardinero) 2명을 특별히 더 임명하였다. 특정한 사람이 주어진 까르고에 지명되면,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보통 까르고의 명단에 있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호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자격이나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지명하자, 한 관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ministro의 경우에 관리들의 심부름을 해야 하는데, 글을 못 읽어서 편지배달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후보자를 지명할 것을 부탁했다.

지명절차가 일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몇몇 사람들은 특정한 까르고에 지명당하자, 자신들이 이미 어려운 까르고를 여러 번 거쳐 왔다고 주장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이의가 거의 받아들여졌다. 한 사람은 자신이 현재 까르고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아들이 까르고를 맞게 되어서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의 까르고를 1년 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리들과 참석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도 까르고를 잘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한 집에서 2명이 동시에 까르고를 맡을 경우에는 한 사람은 연기해 준다고 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도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참석자들이 추천하기를 매우 꺼리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까르고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3시간 이상이 걸렸다. 나머지 까르고인 경찰과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전체회의가 끝난 다음에 무니시삐오 관리들에 의해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해서 선정된다고 한다. 그 해에 까르고를 해야 하지만 까르고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까르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2,500페소(1994년 당시 3.1페소는 미화 1달러)를 무니시삐오에 내야 한다.

위원회(comité)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마을 내의 다양한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생겨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까르고 담당자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 마을에서는 까르고를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고 돈으로 내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위원회의 수는 계속 변하는데, 본 조사가 실시될 때에는 9개의 위원회가 있었다, 전기위원회, 식수위원회, 보건진료소위원회, 유치원 학부모위원회, 초등학교 학부모위원회, 중등학교 학부모위원회, CONASUPO(Compañía Nacional de Subsistencias Populares) 상점위원회, 교회위원회, 삼림경계위원회. 각 위원회는 6명(위원장 1명, 회계 1명, 서기 1명, 평의원 3명)으로 되어 있으나, CONASUPO 상점위원회만 4명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에 배정된 사람들은 거의 불만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많지 않고, 한가한 시간을 정해서 모임을 갖거나, 개인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위원들은 일주일에 2~3시간을 할애해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최근 약 40년 동안 무니시삐오의 관리들에 의해 위원회가 많이 생겼는데, 손해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까르고 제도를 시행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위계구조가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특정한 까르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른 까르고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까르고를 부여받는 데 과거에 거친 까르고의 경력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도 행정위원이나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서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까르고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학력이나 사회적 경험이 상이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0대의 젊은 사람과 50대의 늙은 사람들이 경찰의 까르고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달에 2주일씩 무니시삐오의 청사 앞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을 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까르고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에우세비오(Eusevio, 57세)라는 가난한 농업 노동자는 경찰에 5번이나 계속해서 임명되었다고 했다. 그 동안 여러 번

불만을 표출했지만, 자신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무니시베오 청사 앞에서 밤에 근무를 서고 있던 중에 동료와 싸움을 하게 되어서 칼에 찔리게 되자, 비로소 다른 까르고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까르고를 마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까르고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마을 밖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까르고 때문에 돈을 벌기가 어려워져서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까르고를 맡지 않으려고 한다. 전체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자신이 이 마을에 이사온 지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벌써 까르고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의 도중에 논의된 사례에 의하면 호르헤(Jorge, 38세)라는 운전사는 1년 전에 까르고를 하기 싫다고 해서 돈으로 대신 내기로 했는데, 한 해가 다가도록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마을 사람들이 까르고의 의무를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회의 도중에도 전직 의장인 루이스(Luis, 56세)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마을 관리들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킨다. 우리는 봉사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원하는 사람을 믿는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 재건축을 위한 위원회의 전임 위원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오랫동안 마을을 위해 애썼다. 그들이야말로 살아 있는 봉사의 표본이다. 그들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의 하나인 모렐로스(Morelos)의 아들처럼 했다. 모렐로스는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 이 마을에도 나귀를 데리고 산에서 땀감을 해서 파는 겸손한 시민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을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봉사했다고 말하라. 나는 나의 가족이나 마을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 우리는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

다. 나는 하느님에게 60세에 나의 까르고를 마치게 하지 말라고 기도했다. 만일 하느님이 나에게 여생을 허락하고, 산 환 델 에스파도가 나의 봉사를 원한다면 계속 봉사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이나 멕시코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산 환 델 에스파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멕시코를 의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 환 델 에스파도는 작은 멕시코이기 때문이다.

위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까르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 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화이트카튼(Whitcotton, 1977 : 248~249)이 까르고를 '시간과 자금의 손실'이라고 평가한 것이 이 마을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까르고 제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며, 회피하려는 현상은 다른 마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Cancian, 1992 : 182).

까르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마을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외부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까르고를 대신하는 사람에게는 평균 2,500페소를 지불해야 한다. 심부름꾼이나 청사 미화원처럼 힘든 까르고는 3,000페소가 현행 시세이다. 의장이나 법률고문, 치안판사의 서기는 타자를 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기에 임명되면, 1년에 3,000페소를 내고 젊은 여자를 사무원으로 고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직업이 없고 토지도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까르고를 대신해 주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일이 대단히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극빈층에게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경찰을 하루 대신해 주면 30페소를 받는다. 이는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한다. 조사를 할 당시에도 두 개의 까르고를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었다. 까르고는 1년 내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까르고의 경우(예를 들어 심부름꾼이나 경찰)에도 한 달에 2주만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위원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체가 허

용되지 않는다. 비농업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까르고의 의무를 하나의 지방세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의 말로는 도시에서는 까르고를 하는 대신에 훨씬 비싼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까르고의 부담이 있어도 농촌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표 1〉 산 환 델 에스따도의 마요르도미아

날짜와 축제	마요르도미아의 수
1. 1월 1일, 신년	1
2. 1월 6일, Santos Reyes	1
3. 2월 2일, Calendaría	1
4. 시순절의 셋째 금요일, Sr. Buen Viaje	7
5. 성주간의 일요일	1
6. 성 목요일	1
7. 성 금요일	1
8. Gloria의 토요일	1
9. 유월절의 일요일	1
10. 그리스도 승천의 목요일	1
11. 5월 15일, San Isidro	1
12. Corpus Cristi의 목요일	1
13. 오순절	1
14. 6월 24일, San Juan Bautista	5
15. San Juan Bautista의 참수일	1
16.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1
17. 12월 12일, Guadalupe 성녀의 날	1
18.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2
19.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
20. 12월 31일, 신년 이브	2

*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해마다 변함.

까르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무니시삐오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까르고를 말아야 한다. 종교적 까르고를

말은 사람은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마을에서 시행하는 마요르도미아 중에 하나를 맡아야 하는데, 마요르도미아를 지원하는 사람을 마요르도모(mayordomo)라고 부른다. 산 환 델 에스파도에는 인근의 다른 마을보다 훨씬 많은 수의 마요르도미아를 지니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강력한 천주교의 전통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성인들을 기린다고 말하지만 이런 축제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도 없지 않다. 1974년에는 당시의 무니시페오 관리들이 마요르도미아의 수를 줄여서 4~5개만 남기려고 시도했는데,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인 마을 사람들의 저항에 밀려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마요르도미아를 선호하는 현상은 종교적 신앙심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마요르도미아가 힘을 들이지 않고 까르고를 마치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마을에서는 20가지의 마요르도미아가 있어서, 모두 32명이 마요르도모로서 천주교의 성인이나 다른 축제일을 기린다. 그 밖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내는 사람도 한 명 있는데, 그 사람도 마요르도모로 인정받는다.

마요르도미아에 사용되는 비용은 축제의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 마을의 가장 중요한 성인인 세레 요한을 기리는 6월 24일의 축제나, 사순절의 셋째 금요일의 축제는 6,000페소까지 경비가 든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마요르도미아는 1,500페소로도 가능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에도 맞추고, 마을에서 자신의 위신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한 마요르도미아를 선정한다고 한다. 대체로 돈이 적게 드는 마요르도미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마요르도모는 초대된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과 음료수, 술을 준비해야 되고, 자신의 집과 교회를 장식할 꽃과 양초, 화약 등 여러 가지 장식용품을 구입하며, 마을의 교회를 담당하는 신부에게도 미사 비용을 지불한다. 낮에 동네를 행진하려고 하거나, 밤에 춤을 추려면 밴드를 별도로 초대한다. 마을 사람들은 물가가 상승하고, 사람들의 소비수준이 증가하면서 마요르도미아에 드는 돈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해서 시나칸탄(Zinacantán)에서는 축제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부유한 가정의 연간 소득의 10배에 해당된다고 한다(Vogt, 1990 : 97). 그래서, 다른 마을과는 달리,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는 마요르도미아 의례에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만 초대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손님을 적게 초대할수록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성인 남자들은 마요르도미아 의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마을을 행진할 때에도 거의 어린이와 여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알바로(Alvaro, 59세, 농업)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남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즐기려고 한다. 그들은 마요르도미아에 가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통 남자들은 의례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는 남자들이 오아하카에 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피곤해서 축제에 참석할 수가 없다. 내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술이 제공되면 남자들도 온다. 결혼식에 남자들이 많이 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마요르도미아 의례행위에서 상징적인 종교적 의미는 상당히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능하면 적은 수의 사람을 초청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이 의례의 축제행위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일어났다고 보겠다.

짧은 시간에 자기가 맡은 축제에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까르고의 의무를 완수하는 방편으로 마요르도미아를 선호한다. 그래서 까르고를 지명하기 전에 지원자를 받는 마요르도미아는 항상 인기가 좋다. 이 밖에도 돈을 내고 까르고를 마칠 기회가 있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는다. 다음의 예에서 마을 사람들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1993년 12월에 실시된 전체회의에서, 무니시뻬오 관리들은 94년에 마을에서 교구설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은 다음해에 까르고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 중에 10명을 선정해서 2,000페소를 일시에 내게 하는 대신에 까르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9명이 그 자리에서 제의를 수락했는데, 이를 보면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요르도미아를 선호한다. 그들은 무니시삐오의 청사에서 시간을 죽이는 것보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환(Juan, 47세)이라는 목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요르도미아만 해 왔다고 말하면서, 공민적 까르고를 한다고 해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위의 사실을 고려하면 공민적 까르고를 선호하는 사람과 종교적 까르고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뚜렷한 정치적, 경제적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투표로 선출하는 무니시삐오 관리를 선호하거나 아니면 마요르도미아를 선택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 위신이 낮고 힘든 까르고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점에 동의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려운 여러 까르고를 거친 한 노인의 말이 이런 현상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혼해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까르고를 수행하면서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는다. 그렇지만 마요르도미아는 훨씬 쉽다.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마요르도미아를 해낼 수 있다. 단지 가난한 사람들만 마을을 위해서 힘들고 더러운 까르고를 맡는다. 당신도 돈이 없으면 매일같이 마을 경찰로서 추운 겨울밤을 참아내야 한다(Gustavo, 87세).

공민적 까르고 수행자와 마요르도미아 주최자들 사이의 경제적 분화는 오야하카주의 에스삐날(Espinal) 지역에서 실시되는 벨라(vela) 축제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층화구조의 유형과도 유사하다(Binford, 1990 참조).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 의례나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형태가 개인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이 마을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는 수중에 넉넉한 돈이 있는 사람은 마요 르도미아나 공민적 까르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은 무니시빠오의 관리들이나 마을 내의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좌 우된다.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위계체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모든 까르고를 마친 사람들을 '원로' (principales 혹은 ancianos)라고 부르며, 높은 사회적 위신을 부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주어 우대한다(Harris, 1964 : 26 ; Hernández-Díaz y Lizama Quijano, 1996 : 53). 이 마을에서는 까르고 제도의 위계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연장자를 우대하는 관습이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이,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 이런 실정에서 젊어서 마을을 위해 열심히 봉사를 했던 많은 노인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마을의 의장을 역임했던 로베르토(Roberto, 80세)는 전체회의에서 한 젊은 관리가 자신을 빗대어서 노인들을 비난한 것에 몹시 속이 상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회의를 하는데, 한 관리가 일어나서 전날 실시된 떼끼오(tequio)²⁾에서 노인들은 시간만 때우고, 의무적인 마을의 공동작업에서 제대로 기여를 하지 못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일을 할 때는 노인이 나 혼자였기 때문에 나를 두고 한 말이다. 멕시코에서는 사람들이 노인을 존경하지 않는다. 법에 의하면 노인들은 정치적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매우 나쁜 일이다. 회의에서 그런 비판을 받게 되자, 나는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2. 정치지도자의 선출과 역할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는 까르고 제도에 의하여 정치적 지도자를 선출
2) 마을 내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작업.

한다.³⁾ 가장 중요한 공적인 정치조직은 대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5명의 관리들로 구성되는 무니시뻬오 행정부이다. 그러나 관리의 선출에 정당의 직접적인 지원과 추천은 없다. 선거가 실시되는 날에는 오아하카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와서 참관한다. 가장 최근에 선출된 관리들은 1996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1995년 12월의 까르고 임명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되었다. 3명의 후보 중에서 선출된 의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농업 종사자이고, 나머지 관리들도 대부분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 3년마다 실시되는 관리들의 선출시기가 되면, 까르고를 맡아야 할 사람 중에서 누가 적임자인지 논의를 한다고 한다.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마을 사람들의 의사를 묻는데, 선거가 있기 6개월 전부터 이런 문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몇 명의 후보로 압축되는데, 특별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선거를 할 때까지 확실히 누가 되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한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기도 한다. 의장은 재선이 불가능하고, 그 밖의 관리는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예전에는 마을 내에서 경험 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을 관리로 선출했지만, 현재는 관리로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 밖에 관리의 선출에 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마을 사람들이 거의 천주교 신자이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영향력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특히 1995년 8월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전임 신부는 마을 일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누가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지시하여서 교회의 힘이 거의 결정적이었다. 1996년에 당선된 현재의 의장도 교회에서 종교 모임을 열심

3) 까르고 제도를 통해서 관리들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제도혁명당이 선거를 독점하고 있다. 참고로 오아하카주의 570개 무니시뻬오 중에서 제도혁명당만 선거에 참여하는 무니시뻬오의 연도별 수는 다음과 같다 : 1980-497, 1983-483, 1986-449, 1989-445, 1992-436(Díaz Montes 1994 : 109).

히 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18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전임 신부가 지나치게 정치적 문제에 간섭하고, 불미스러운 여자관계 등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나면서, 주민들의 대표가 주지사 사무실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새로운 신부로 바뀌게 되었다. 새로 부임한 신부는 오아하까시에 집과 가족이 있고, 마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마을 일에 그다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은 과거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의장은 공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하여 각종 행정을 담당하며, 출생, 혼인, 사망 등 제반 사항을 책임진다. 또한 마을 내의 세금부과나 수입과 지출도 관리한다. 법률고문은 주정부의 행정부와 협조하여 무니시삐오 관리들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한다. 그리고, 무니시삐오의 재판관으로서 마을 내의 사소한 문제를 심판하거나 조정한다. 3명의 행정위원은 각각 세금과 공공사업, 교육, 마을의 경비를 관할하는 행정관리들이다.

무니시삐오 행정당국은 마을 내의 공적인 행정에 관한 모든 일들을 책임진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무니시삐오 정부청사(palacio municipal)로 가서 관리들과 상담할 수 있다. 이 마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업무시간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는 인근의 일부 마을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마을 사람들은 관리들도 마을 일에만 얽매일 수 없으며, 생업에도 종사해야 하므로 항상 청사에 가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마을에는 에히도는 존재하지 않고, 오랜 역사를 지닌 공동토지(terrenos comunales)가 있기 때문에 공동토지 관리자를 법에 따라 선출하여 모든 일을 맡긴다. 공동토지 관리자는 의장에 의해서 임명되고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지역 내의 관습에 따라 현실적으로 공동토지 관리자는 공동토지의 경작권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간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공동토지에 속한 삼림지역에서 벌목을 하는 경우, 혹은 다른 마을과 토지경

계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니시빠오의 관리들과 의논해서 자문을 얻고 있다. 마을 내에서 목재생산이 활발했던 1992년까지는 여러 가지 이권이 많아서 공동토지 관리자의 권한이 막강했지만 근래에는 이렇다 할 수입이 없어서 평상시에도 사무실이 늘 닫혀 있고 하는 일도 별로 없어서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낮아졌다고 하겠다. 요즘은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무니시빠오 관리들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

그 외에 치안판사도 존재하는데, 이는 의장의 지명을 받는 임기 1년의 재판관으로서 마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래에는 법률고문의 권한이 커지면서 사법권을 장악하게 되어서 치안판사의 힘은 매우 미약하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치안판사가 법률조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에틀라(Edla)의⁴⁾ 경찰에 인계한다고 한다. 법률고문이나 치안판사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편인데,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하루 동안 마을의 감옥에 감금한다.

3. 정치집회의 형식과 목적

마을 내의 일반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의장은 보통 법률고문과 상의하여 해결하고, 경우에 따라서 행정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일이 생기거나, 주민들의 공동 관심사가 발생하면 주민전체회의(asamblea)를 개최한다. 전체회의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이다.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과거에 마을 공동토지에 속

4) 에틀라는 산 환 델 에스파도가 속한 구역(distrito)으로서, 오아하까주에는 30개의 구역이 있다.

한 삼림지역에서 나무를 잘라 팔 때에는 수시로 논의를 해야 될 일이 많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주민전체회의에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만이 참석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여자들은 마을을 위해 봉사할 것이 별로 없고 까르고에 참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아하까의 다른 지역에서는 여자들도 회의에 참석하기도 한다.

다음해에 까르고를 수행해야 할 사람을 선정하는 12월 첫 일요일의 전체회의를 제외하면, 별도로 정해진 날짜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무니시베오의 관리들이 수시로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보통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는데 끝나는 시간은 안전의 수나 중대사항에 따라 늦어지기도 한다. 대체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 큰 관심거리가 없을 때에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린다. 회의를 개최하려면 하루나 이틀 전에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방송이 잘 전달되지 않는 골짜기에는 관리들이 직접 찾아가서 알려 준다. 회의가 있는 날은 10시경부터 음악을 틀면서 1시간 이상 방송을 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11시 30분 정도가 되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인다. 법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반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성인 남자의 수가 약 500명 정도 되지만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가 참석한다.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원래 20페소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으나, 이런 강제적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다른 일이 있거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 관리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에 오는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적어서 회의 참석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호명을 해서 참석자의 수를 확인하는데 모인 사람들은 정족수가 되지 않아도 앞으로 사람들이 더 올 것이라며 회의의 속개를 주장한다. 논의될 의제는 미리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참석자들은 무슨 일로

회의가 개최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회의의 진행은 격식을 갖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상대방을 지칭할 때도,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señor”라는 용어를 자주 들을 수 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격렬한 토론이 일어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통상적으로 무니시빠오 관리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전달하거나, 마을 내에서 공동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의 의사를 묻는다. 조사자가 일년 정도 거주하는 동안에 마을 내의 공동임야에서 벌목을 재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만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농업과 임업, 그리고 다른 마을과의 토지 경계를 둘러싼 중요한 의제는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아서 무니시빠오의 문서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고, 오아하까시에 있는 연방정부의 농지개혁부(Secretaría de Reforma Agraria)와 농업·수자원부(Secretaría de Agricultura y Recursos Hidráulicos) 사무실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농업과 임업 등 엄격한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분야를 제외한 일상적인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도 실행이 되지 않거나, 실행이 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마을 사람들은 불평한다. 예를 하나 들면, 한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 환 델 에스파도에 차고를 두고(sitio San Juan del Estado), 오아하까까지 왕복하는 택시가 승객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운행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출근시간에는 타기가 대단히 어렵고 곡예운전을 해서 승객들을 불안하게 하며 짐이 많은 경우 타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논의가 있기 직전에 택시 하나가 사고를 내어서 승객과 운전사가 모두 사망했다. 오랜 토의 끝에 사람들을 오아하까까지 사람들을 편하고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버스를 하나 사서 운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버스를 산다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조사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를 물어 보았다. 소규모의 농업에 종사하는 빠블로(Pablo)라는 47세의 남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무니시삐오 관리)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늘 그렇다. 회의를 할 때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끝이다. 그 다음에는 신경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자 몇 년 뒤에 마이크로 버스를 하나 사게 되었다. 특히 주민들 중에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한다. 마을의 한적한 곳에 사는 몇몇 사람들은 중심지역과는 달리 가로등이 없어서 매우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자주 거론을 했는데,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4.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행위

무니시삐오 관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제도혁명당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마을은 제도혁명당의 이념과 정책에 따라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⁵⁾ 그러나, 다른 마을처럼 무니시삐오 청사 안에 제도혁명당의 사무실이 있지도 않고, 정당조직이 활성화되지도 않아서, 실제적인 정치행위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단지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행사가 있거나, 제도혁명당의 관리들이 방문할 때, 정당에 대한 정책소개와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이다. 마을에 국민행동당(PAN : Partido de Acción Nacional)이나 민주혁명당(PRD : 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의 구호와 상징이 그려져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정당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단지 주지사나 주의회의 선거가 있을 때, 정당 사람들이 와서 그린 것인데, 마을 사람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그리도록 내버려 둔다고 한다. 지금까지 정치적 이념

5) 오아하까주는 제도혁명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에 속한다. 참고로 1992년의 주지사선거에서 나타난 정당별 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 PRI-77%, PRD-10%, PAN-5%, PFCRN-3%(Díaz Montes 1992a : 121).

이나 그 밖의 문제로 분열된 일이 없다고 한다.

정치조직이 아닌 비공식적인 모임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비공식결사체로는 금주를 위한 모임인 '익명의 알콜중독자'(Alcoholicos Anónimos)가 유일한 경우이다. 매주 한 차례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금만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은 마을에 두 개가 존재하는데, 각각 10여 명의 고정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비공식 정치집회는 드물어서, 주지사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기간에도 공개적인 논의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을 안팎의 정치적 현실에 무관심한 것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거에 공동으로 삼림자원을 이용했던 때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오아하카시나 멕시코시, 그리고 미국 등지로 일자리를 찾아나가면서, 마을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로 줄어들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마을의 공동문제에 대해 관심을 덜 갖게 된다. 전체회의에 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농업 종사자이거나, 경제력이 있어서 발언권이 강한 사람들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이 집에 있으면서도 회의에 한 번도 가지 않는다. 마을에서 공동토지 관리자를 역임했던 한 농업 종사자 환(Juan, 49세)은 다음의 예를 들면서 마을 사람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비판했다. “지금은 벌목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므로 나무를 자르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지만 가끔 마을 사람들 몰래 나무를 자르는 일이 발생한다. 다른 마을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들에게 알려서 처벌을 받게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보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일에 신경을 쓰기 싫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니시빠오의 현직 관리들을 제외하고, 비공식적인 정치지도자의 역할은 미약하다고 보겠다. 이 마을에 까시계가 아직도 존재하는냐는 질문에 2/3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예전에는 소수의 까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혁명 이전에는 마을의 토지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온 까시계의 소유였는데, 혁

명 이후에 정부의 토지분배정책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본다. 즉 대토지 소유자(hacendado)가 까시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까시께들은 경제적 부를 배경으로 하인으로 고용하기도 하는 등 사람들을 지배했으며, 생활 양식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예를 들면, 까시께의 아이들만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까시께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마을에서 관개시설이 되어 있는 사유토지(pequeña propiedad)를 다수 소유하고 있으며, 무니시빠오 관리를 역임한 사람들을 대여섯 명 지목한다. 이들은 현재의 까시께가 과거와는 힘이 줄어든 '작은 까시께'라고 하면서 토지, 트럭, 트랙터, 가축 등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즉, 정치적 의미보다는 경제적 의미의 까시께를 지칭한다. 이들이 지목한 사람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마을의 전·현직 관리들이다. 그러나 마을에서 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직업의 하나로서 농업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현실에서(Joo, 1995 : 주종택, 1995 참조), 농지에 기반을 둔 전통적 지도자인 까시께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최근으로 15년 전만 해도 이 마을은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력을 움켜쥔 한 가족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마을 일에 간섭을 하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임업생산을 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등 행실이 좋지 않아서 주민들의 신임을 크게 잃었다고 한다.

VI. 정치변화와 새로운 정치운동

1.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무관심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이들의 정치참여 형태와 의식은 상당한 변화를 겪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

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마을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사회문화적·정치적 관행은 증가하는 외부의 임금노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점차로 주민들은 마을 밖의 세계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다. 한편 외부에 취업하고 있지만 낮은 급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마을의 전통적 정치구조인 까르고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시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실제로 적절한 임금이나 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3년마다 새로운 까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까르고 제도는 마을 사람들이 외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외부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을 내의 정치적 구조에 상당히 냉소적이거나 비협조적이다. 이것은 마요르도미아를 선호하는 마을 내의 소규모 사업가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92년에 마을에서 중요한 소득원의 하나였던 임업생산이 중단되면서,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 이런 경제적 문제가 정치적 관심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와 과거의 정치적 경력은 아직도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이를테면 각종 공식, 비공식 모임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마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자신의 의사를 따르도록 한다. 이런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전체회의에서 가난하고 술을 자주 먹는 한 젊은이가 발언을 신청하자 사람들은 그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그래도 말을 하자 야유를 해서 말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산 환 델 에스파도의 경제활동이 과거의 농업 중심에서 현재에는 상업, 제조업, 이주 임금노동 등 다양해지면서 지역 유지의 개념이 전통적인 대지주가 아니라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거나 수입이 많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외부 사회의 경제적 기회를 노리고 있는 실정에서 외부 사회에서 일정한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자주 접촉할 기회를 갖는 사람들은 우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교사,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관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고 이들은 무니시뻬오 관리들이 잘못하는 점을 비판하는 일이 잦다.

정치적 당파 사이의 논쟁은 이 마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른 종교가 유입되지 않고,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천주교 신도인 것처럼, 정당은 제도혁명당이 유일한 것이었다. 멕시코의 많은 지역에서 폭력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Frye, 1996 : 142~143 참조), 이 지역은 정치적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오아하카의 여러 마을이 폭력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하다. 오아하카 계곡의 여러 마을에서 80년대 이후 정치적 개혁이 나타나면서 소수의 야당들이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일부에서는 정당간의 대결이 극심해지면서 폭력사태도 발생하고, 무니시뻬오의 권력을 야당이 장악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런 와중에도 산 환 델 에스파도는 제도혁명당에 계속해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정치적 권력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빼면, 대부분은 정치에 관심이 적다. 이런 정치적 무관심은 이 마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멕시코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다는 것이 이를 잘 표현해 준다.⁶⁾ 산 환 델 에스파도 사람들은 일부의 주민들이 공식 모임에서 강력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여하려고 할 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정치인'(político)이라고 냉소적으로 이야

6) 정치집회나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멕시코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야당 후보가 없어서 정치적 관심을 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Díaz Montes 1992 : 53). 참고로 오아하카주의 연도별 무니시뻬오 선거에서 투표 불참률은 다음과 같다 : 1977-52.5%, 1980-49.7%, 1983-51.5%, 1986-47.4%.

기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마을 사람들은 강력한 정치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의사결정은 소수의 사람들의 개별적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 새로운 정당조직과 정치적 갈등

전통적 정치구조의 틀 안에서 마을에서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외부사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지역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제도혁명당이 사실상 독점하던 오아하카 주의 정치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오게 되면서,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이 싹트게 되었다. 오아하카의 시장에 국민행동당이 당선되고,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80년대 후반기부터 야당이 지방의 무니시빠오를 장악하는 일이 조금씩 발생했다. 이런 움직임은 기존의 전통적 정치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산 환 델 에스파도에서도 이런 흐름에서 격리된 채로 남아 있을 수는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마을 밖에 눈을 돌리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런 흐름을 가장 먼저 포착한 사람은 앞에서도 언급한 루이스(Luis)라는 사람이다. 그는 마을에서 의장을 거쳤고, 아버지와 형제들도 마을의 관리를 역임했으며, 토지도 상당히 소유하고 있고 그 밖의 재산도 많아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유지로 인정받고 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예전부터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등 자신들을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도록 만들려고 상당히 애를 썼다. 특히 95년까지는 마을 의장이 그의 처남이라서 그의 행동에 제재를 가할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96년에 새로운 관리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주민들도 더 이상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그가 발언을 하

려면, 사람들이 발언을 제지하거나 불평의 소리가 높아졌다. 93년 10월에 임업생산 재개를 위한 전체회의에서도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가운데, 그를 포함한 일부의 사람들이 나무를 계속 자르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런 것을 두고 마을에서는 그가 너무 자신의 이익에만 신경을 쓴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욕구가 강한 그로서는 마을 내의 정치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되자, 외부의 정치조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96년 8월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까르데니스따 국민재건당(PFCRN : Partido del Frente Cardenista de Reconstrucción Nacional)과 접촉을 하게 되었다. 평소부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정치활동에 관심이 있는 그로서는 좋은 기회였다. 그는 마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는 정당조직을 활성화하려고, 그의 집에서 자주 집회를 갖는다고 한다. 또, 당조직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서, 오아하카 시에서 까르데니스따 국민재건당의 항의집회나 시위에도 자주 간다고 한다. 특히 그는 경제적 지원에 관심을 쏟아서, 정당조직을 통해서 후원자들에게 가축이나 건축자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1월에 정당을 통해서 정부에 지원을 신청해서 33명에게 80~85페소의 돈을 탈 수 있게 했다고 한다. 그 결과로 1997년 2월 현재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뿐 아니라, 일부의 마을 사람들도 참여시키고 있어서 회원은 50~60명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까르데니스따 국민재건당이 군소정당에 불과해서 세력을 크게 확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⁷⁾ 1998년의 주지사 선거가 다가오면서 야당의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고 정당간의 대결도 많아질 것이다.⁸⁾ 이것은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부분적으로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개별적 접

7) 까르데니스따 국민재건당은 오아하카주에서는 테완테펙(Tehuantepec) 지역에서 만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Díaz Montes, 1992 : 124).

8) 1992년에 실시된 선거에서 무니시페오를 장악한 정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PRI-542, PRD-14, PAN-4, PFCRN-2, PARM-2(Martínez Vásquez, 1995 : 152).

측과 지원 때문에 사람들은 제도혁명당은 마을을 위한 지원을 하지만, 까르테니스따 국민재건당은 개인만 지원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루이스의 행동에 대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그와 가까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나, 정치적 경제적 이해나 필요성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그를 지원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루이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을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믿는다. 단지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정치적 변화를 시도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 석상에서 그가 발언을 하는 것도 싫어한다. 심지어 마을 관리들은 조사자에게 다른 정당조직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마을 사람 모두 제도혁명당원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에서는 '일상적 공포의 정치'에 의해 야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McDonald, 1997 : 272), 보수적인 전통적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야당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무관심과 새로운 정당조직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현실적 여건이 마을에서 정당조직을 활성화하기가 어렵지만, 만일 새로운 정치조직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주민들에게 할 수 있으면, 새로운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급부상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겠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근의 다른 무니시뻬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당의 지원을 받은 다음에, 돈을 상환하지 못해서 곤란한 형편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새로운 정치적 갈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오아하카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야당은 국민행동당과 민주혁명당이라는 사실에서, 까르테니스따 국민재건당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VII. 결론

조사지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농촌지역의 정치행위는 멕시코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정치개혁이나 민주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무니시뻬오 내에서는 여성들의 참정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남자 노인들에게도 전통적인 까르고 제도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전통적 정치구조를 아직까지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까시게가 사실상 소멸되거나 역할이 미약해지고, 까르고 제도에도 상당히 변화된 채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의 정치는 종교, 종족성, 성, 정치이념 등 문화적 의미와 관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치의 성격도 상이하게 나타난다(Rubin, 1996 : 89-90). 이것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지시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전달되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실현되는 정도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멕시코 정부의 탈중앙집권화 정책과 무니시뻬오의 개혁으로 형식적인 무니시뻬오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강화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실제로 무니시뻬오 안에서 정치적 과정이 실현되는 형태는 전통적 구조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무니시뻬오 내부의 정치행위와 선거는 하나의 의례행위와 다름이 없다. 농촌사회가 과거에 비해 사람들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질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지만, 전통적 정치구조에 기초한 정치적 관행은 이런 현상을 효율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과정은 근대적 발전이 전통적 대중문화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통문화가 변형된 채로 남아 있어서 정치 분야에서도 전통과 근대성이 공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가르시아(García Canclini, 1995 : 153)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이런 특성을 '혼합성'(hybridity)이라고 불렀다.

과거에 농촌사회가 동질적인 형태로 존재할 때에는, 전통적 정치구조가 합의와 참여에 의한 순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나, 오늘날의 민주화과정과는 상충되는 관계로 마을 내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불명확해졌다고 보겠다. 따라서, 마을 관리들이나 노년층에 대한 권위가 많이 상실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치구조는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이런 현상은 농촌에서의 정치참여 형태를 파편적이고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변화가 정치적 관심과 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외부 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증가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지역의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해에 동조하는 정치적 모임을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기존의 정치적 관행에 회의를 품고 무관심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려는 정당정치의 활성화는 기존의 정치세력과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 간에 필연적인 대결을 유도하게 되고, 야당의 권력장악은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주종택, “라틴아메리카의 농촌변화와 농민의 성격,” 『라틴아메리카연구』 8(1) : 235~262, 1995.
- Binford, Leigh, “Political Economy of the Velas in the Isthmus of Tehuantepec,” in Lynn Stephen and James Dow(eds.), *Class, Politics, and Popular Religion in Mexico and Central America*, pp.77~92, Washington D.C. :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1990.
- Brewster, Keith, “Caciquismo in Rural Mexico during the 1920s : The Case of Gabriel Barrio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8(1) : 105~128, 1996.
- Cámara, Fernando, “Religious and Political Organization,” in Sol Tax(ed.), *Heritage of Conquest : The Ethnology of Middle America*, pp.143~173, Glencoe : Free, 1952.
- Campbell, Howard, “Tradition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The Politics of Isthmus Zapotec Culture,”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0(3) : 83~97, 1993.
- Cancian, Frank, *Economics and Prestige in a Maya Community : The Religious Cargo System in Zinacantan*,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 , “The Zinacantan Cargo Waiting Lists as a Reflection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1952~1987,” in Lynn Stephen and James Dow(eds.), *Class, Politics, and Popular Religion in Mexico and Central America*, pp.63~76, Washington D.C. :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1990.
- , *The Decline of Community in Zinacantan : Economy, Public Life*,

- and Social Stratification, 1960~1987*,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 Chance, John K., "Changes in Twentieth-Century Mesoamerican Cargo Systems," in Lynn Stephen and James Dow(eds.), *Class, Politics, and Popular Religion in Mexico and Central America*, pp.27~42, Washington D.C. :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1990.
- Chance, John K. and William B. Taylor, "Cofradías and Cargos :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Mesoamerican Civil-Religious Hierarchy," *American Ethnologist* 12(1) : 1~26, 1985.
- Chick, Gary E., "Concept and Behavior in a Tlaxcalan Cargo Hierarchy," *Ethnology* 20(3) : 217~228, 1981.
- Cockcroft, James D., *Mexico : Class Formation,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State*, N.Y. : Monthly Review, 1983.
- DeWalt, Billie R., "Changes in the Cargo Systems of Mesoamerica," *Anthropological Quarterly* 48(2) : 87~105, 1975.
- Díaz Montes, Fausto, *Los municipios : la disputa por el poder local en Oaxaca*, Oaxaca, México : Universidad Autónoma "Benito Juárez" de Oaxaca, 1992.
- , "Elección de gobernador en Oaxaca," *Cuadernos del Sur* 2 : 113~128, 1992a.
- , "Elecciones municipales en Oaxaca : 1980~1992," *Cuadernos del Sur* 6/7 : 93~110, 1994.
- Diamond, Larry(ed.),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Boulder, CO : Lynne Rienner, 1993.
- Dow, James, "Ritual Prestation, Intermediate-Level Social Organization, and Sierra Otomí Oratory Groups," *Ethnology* 35(3) : 195~202, 1996.
- Esteva, Gustavo, *The Struggle for Rural Mexico*, South Hadley, MA :

- Bergin & Garvey, 1983.
- Foster, George M., *Tzintzuntzan : Mexican Peasants in a Changing World*, revised ed., N.Y. : Elsevier, 1979.
- Fox, Jonathan, "Democratic Rural Development: Leadership Accountability in Regional Peasant Organizations," *Development and Change* 23(1) : 1~36, 1992.
- Friedrich, Paul, *Princes of Naranja*,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6.
- Frye, David, *Indians into Mexicans : History and Identity in a Mexican Town*,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6.
- García Canelini, Néstor, *Hybrid Cultures : Strategies for Entering and Leaving Modernity*,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5.
- Gibson, Charles, "Indian Societies under Spanish Rule," in Leslie Bethell(ed.), *The Cambridge History of Latin America*, v. II pp.381~419,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Guillén López, Tonatiuh, *Gobiernos municipales en México : entre la modernización y la tradición política*, México : Grupo Editorial, 1996.
- Harris, Marvin, *Patterns of Race in the Americas*, N.Y. : Walker, 1964.
- Hernandez, Luis and Jonathan Fox, "Mexico's Difficult Democracy : Grassroots Movement, NGOs, and Local Government," in Charles A. Reilly(eds.), *New Paths to Democratic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 The Rise of NGO-Municipal Collaboration*, pp.179~210, Boulder, CO : Lynne Rienner, 1995.
- Hernández-Díaz, Jorge, "Panixtlahuaca : el café como agente de diferenciación social," in Raúl Benítez Zenteno(ed.), *Sociedad y política en*

- Oaxaca, 1980, pp.33~58, Oaxaca, México : Universidad Autónoma "Benito Juárez" de Oaxaca, 1982.
- , "Ethnic and Class Relations in Oaxaca, Mexico,"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1991.
- , *Los Chatinos : etnicidad y organización social*, Oaxaca, México : Universidad Autónoma "Benito Juárez" de Oaxaca, 1992.
- Hernández-Díaz, Jorge y Jesús Lizama Quijano, *Cultura e identidad étnica en la región Huave*, Oaxaca, México : Universidad Autónoma "Benito Juárez" de Oaxaca, 1996.
- Hewitt de Alcántara, Cynthia,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Rural Mexico*,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84.
- Joseph, Gilbert M. and Allen Wells, "The Rough-and-Tumble Career of Pedro Crespo," in William H. Beezley and Judith Ewell(eds.), *The Human Tradition in Latin America*, pp.27~40, Wilmington, DE : Scholarly Resources, 1987.
- Joo, Jong-Taick, "Corn-Buying Peasants : The Capitalist Development of Forestry Production and its Impact on the Diversity of Local Economy in Oaxaca, Mexico,"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1995.
- Knight, Alan, "Mexico, c. 1930~1946," in Leslie Bethell(ed.), *The Cambridge History of Latin America*, v. VII pp.3~82,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LaFrance, David and Guy P. C. Thompson, "Juan Francisco Lucas : Patriarch of the Sierra Norte de Puebla," in William H. Beezley and Judith Ewell(eds.), *The Human Tradition in Latin America*, pp.1~13, Wilmington, DE : Scholarly Resources, 1987.
- Lockhart, James, "Social Organization and Social Change in Colonial

- Spanish America," in Leslie Bethell(ed.), *The Cambridge History of Latin America*, v. II pp.265~319,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Long, Norman and Bryan Roberts, "The Agrarian Structures of Latin America, 1930~1990," in Leslie Bethell(ed.), *The Cambridge History of Latin America*, v. VI pp.325~390,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Mallon, Florencia E., *The Making of Post Colonial Mexico and Peru*,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Martin, C. J., "Economic Strategies and Moral Principles in the Survival of Poor Households in Mexico: An Urban and Rural Comparison,"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15(2) : 193~210, 1996.
- Martínez Vásquez, Víctor Raúl, "Elecciones municipales en Oaxaca(1992)," *Cuadernos del Sur* 8/9 : 145~167, 1995.
- Massolo, Alejandra, "El gobierno municipal : ¿ a la mano de las mujeres?" *Cotidiano* 74 : 57~60, 1996.
- McDonald, James H., "A Fading Aztec Sun: The Mexican Opposition and the Politics of Everyday Fear in 1994," *Critique of Anthropology* 17(3) : 263~292, 1997.
- Murphy, Arthur D. and Alex Stepick, *Social Inequality in Oaxaca : A History of Resistance and Change*,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1991.
- Ouweneel, Arij, "From Tlahtocayotl to Gobernadoriyotl : A Critical Examination of Indigenous Rule in 18th-century Central Mexico," *American Ethnologist* 22(4) : 756~785, 1995.
- Reilly, Charles A., "Public Policy and Citizenship," in Charles A. Reilly(eds.), *New Paths to Democratic Development in Latin*

- America : The Rise of NGO-Municipal Collaboration*, pp.1~27,
Boulder, CO : Lynne Rienner, 1995.
- Riding, Alan, *Distant Neighbors : A Portrait of the Mexicans*, N.Y. :
Vintage, 1989.
- Rubin, Jeffrey W., "Decentering the Regime : Culture and Regional Politics
in Mexico,"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31(3) : 85~126,
1996.
- Sánchez Silva, Carlos, "Patrimonialismo y poder político en Oaxaca,
1786~1860," *Cuadernos del Sur* 10 : 57~89, 1995.
- Stein, Stanley J. and Barbara H. Stein, *The Colonial Heritage of Latin
America : Essays on Economic Dependence in Perspective*,
N.Y. :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Stephen, Lynn, *Zapotec Women*,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1.
- Topete Lara, Hilario, "El sistema de cargos religiosos : hipótesis acerca de su
supervivencia y expansión, y nuevas relaciones del clero con la
población en la comunidad de nuevo San Juan Parangaricutiro,
Michoacán," in Héctor Tejera Gaona(ed.), *Antropología política :
enfoques contemporáneos*, pp.487~502, México : Plaza y Valdés,
1996.
- Vallado Fajardo, Iván, "Partidos políticos en el campo yucateco,
1978~1993," in Héctor Tejera Gaona(ed.), *Antropología política :
enfoques contemporáneos*, pp.243~264, México : Plaza y Valdés,
1996.
- Varese, Stefano, "The Ethnopolitics of Indian Resistance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3(2) : 58~71, 1996.
- Vogt, Evon Z., *The Zinacantecos of Mexico : A Modern Maya Way of Life*,
2nd. ed., Fort Worth, TX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90.

Whitecotton, Joseph W., *The Zapotecs : Princes, Priests & Peasants*,

Norman, OK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77.

Wolf, Eric, *Peasant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66.